

축사

우리나라박물관의 대변자로 자리를 분명히 한 고문화의 68집 발간을 축하하며.....

김종규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올 병술년 한해는 우리박물관계가 내실을 충실히 하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충북, 경북, 경남, 전남, 강원 등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지역협의체 발족과 지역 박물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지역박물관들의 활성화가 가장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지역분권화시대에 적극부합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박물관협력망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도 지역박물관의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협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과 9월 그리고 12월 초에 제주와 경주, 충남아산 등에서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를 비롯 담당공무원(아산 워크숍의 경우)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진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박물관 진흥조례를 지난 4월 제정하였습니다.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

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는 대학박물관 활성화의 원년이라고 해도 될 만한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협회가 주최한 신년교례회에는 유래 없이 전국 주요대학 총장님이 대거 참석하셔서 대학박물관의 중요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건축가 렘 쿨하스가 설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관심사로 주목받았던 서울대미술관이 지난 6월 역사적인 개관을 하였습니다. 더하여 선문대학교가 개교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던 박물관을 비로소 개관하였습니다. 선문대박물관이 수집해왔던 청자상감파랑문대매병, 추사 김정희, 단원 김홍도 작품 등 4천점에 가까운 소장품들을 선보임으로써 우리문화유산의 절정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특별전도 개최되었습니다. 한양대박물관의 '지구촌얼굴' 특별전과 고려대 박물관의 한 불수교 120주년 기념 '서울의 추억, 한국 프랑스 1886~1905 특별전' 그리고 경희대박물관의 '고려 유물 전' 등이 그것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학박물관의 활성화는 그동안 다소 침체기에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대학박물관이 본 모습을 찾아간다는 점과 더불어 미래의 박물관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향후 대학박물관이 보여주게 될 발전된 모습에 더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동안 대학박물관의 활성화에 밑거름으로 고문화의 역할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학박물관의 연구와 학술, 홍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박물관 전체를 대변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거듭 고문화 68집 발간을 축하합니다.